

가족체계의 기능성, 부모 및 자녀요인, 부모-자녀관계가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복지수준에 미치는 영향

- 청소년 자녀의 우울정도와 관련변인간의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

The Effect of Family System Functioning, Parent & Child Factor and Parent-child
Relation on Adolescent's Psychological Well-being: Focusing on the Causal
Relations of Adolescent's Depression and Related Variables

수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부교수 최 규 련

Dept. of Home Management, Suwon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Kyu Reon Choi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고찰 | V. 요약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Family System Functioning, Parent & Child Factor and Parent-child Relation on Adolescent's Psychological Well-being (Family Life Satisfaction, Self-Esteem and Depression), and the causal relations of Adolescent's Depression and Related Variables.

The subjects were 532 triads of adolescents and their parents living in Seoul area, Korea. The survey methods were questionnaires included FACES II, PAC Inventory, Family life satisfactin scale, KMSS, Self-Esteem Inventory and CES-D, etc.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ies, percentages, mean, standard deviation, paired t - test, Pearson's correlation , multiple regression, and path analysis.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

Family system functionings had a indirect effect through adolescents' family life satisfaction, self-esteem on adolescents' depression. The degree of openness of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father's marital satisfaction had a indirect effect through adolescents' family life satisfaction on adolescents' depression. Adolescents' satisfaction with physical self, peer-relations and school life had a indirect effect through adolescents' self-esteem on their depression. Also adolescents' satisfaction with peer-relations and their fathers' depression had a direct effect on their depression.

I. 서론

1. 문제의 제기

청소년 자녀기 가족은 자녀가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도적 상황에서 정체감 확립과 진로 결정은 물론 학교생활과 학업성취, 친구관계 적응을 하는 과정에 있으므로 자녀 자신이 갈등과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십대들의 족지, 1994; 청소년개발원, 1998; 최규련, 1996; Sigel & Brown, 1988). 부모들의 경우도 역시 변화하는 부모-자녀 관계에 대응하는 과정에 있고 다중역할로 인한 어려움 등으로 갈등과 정서적 문제를 지니기 쉽다(최규련, 1993a). 따라서 이 시기의 청소년 자녀와 부모는 심리적 복지면에서 취약할 가능성이 높고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최근 청소년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청소년 전문가들과 가족임상가, 연구자들은 청소년의 심리적 복지와 연관시켜 가족체계의 건강성과 기능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Olson 등의 순환모델이 적용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의 심리적 복지 중 우울문제를 중심으로 가족체계의 기능성, 부모와의 의사소통, 부모의 화목도 등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의 관계를 고찰한 연구들이 상당수 있다(김윤희, 1989; 민하영, 1992; 박금희, 1986; 백양희·최외선, 1997; 전귀연·최보가, 1993, 1995a, b, c).

그러나 청소년의 심리적 복지변인에는 이 우울문제 외에도 가정생활만족도나 자아존중감이 포함되는데, 이 변인들과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의 관계를 고찰한 연구는 거의 없다. 또 가정생활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우울과 행동문제 발생의 원인이라는 보고도 있으나(김선애, 1994; Hendrick, 1975; Kendal & Davis, 1982; Kovach, 1983; Medinnus & Johnson, 1976) 단편적인 결과에 그칠 뿐이고, 가족체계의 기능성을 비롯한 가정의 심리적 환경변인들과 청소년의 심리적 복지변인인 가정생활만족, 자아존중감, 우울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거나 심리적 복지변인 상호간의 관계를 파악하려는 시도는 극히 적다.

또한 체계이론을 적용해볼 때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복지수준은 청소년이 속한 가정의 심리적 환경외에 자녀의 외모, 친구관계, 학교생활 등 자녀요인에 의하여, 그리고 부모의 결혼만족, 자아존중감, 우울정도 등 부모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일치된 결과가 아직 없고 단편적인 보고만 있을 뿐이다(심희옥, 1998; 최선남·최외선, 1995; Gohm et al., 1998; Kersetzis et al., 1998).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가족체계의 기능성과 부모요인(결혼만족, 자아존중감, 우울정도), 자녀요인(외모만족, 친구관계만족, 학교생활만족), 부모-자녀관계(부모-자녀간 개방적 의사소통) 등이 청소년자녀의 심리적 복지수준(가정생활만족, 자아존중감, 우울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며, 특히 청소년의 우울정도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인과관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현재까지 이론적·경험적 연구가 미약한 여건이므로 하나의 탐색적 접근 성격을 지닌다. 이로써 청소년자녀와 가족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될 수 있고 일반화를 위한 후속연구의 시발점으로서 기여할 수 있다.

2. 연구문제

이상의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둔다.

1. 청소년 자녀와 그 부모가 지각한 가족체계의 기능성, 심리적 복지수준은 어떠하며 부모와 자녀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2. 가족체계의 기능성, 부모요인, 자녀요인, 부모-자녀 관계 등과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복지수준의 상호관계는 어떠한가?
3.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가정생활만족, 자아존중감, 우울정도에 대한 관련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4. 청소년 자녀의 우울정도와 관련변인간의 인과관계는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고찰

1. 가족의 기능성과 청소년의 심리적 복지수준과의 관계

Olson 등의 순환모델(circumplex model)은 체계이론에 입각한 이론적 틀로서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의 두 요소로 구성된다. 이 모델은 임상과 연구분야에서 다수의 연구성과를 배출하고 있고 가족의 기능성을 평가하는 유용한 척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한국문화에의 적용가능성을 위해서는 연구의 축적이 더 필요하므로 본 연구에서도 이를 사용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직선성을 보이는 것으로 잠정적인 합의가 되었고(최연실, 1996; 김수연, 1997; Lavee & Olson, 1991), 본 연구자의 선행연구(1995b, 1998)에서 응집성과 적응성 척도간의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두 영역을 합하여 가족체계의 기능성이라고 명명하여 분석한 바 있다. 그에 따라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도 이 용어를 사용하고 고찰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 청소년 자녀가 그 부모보다 가족체계의 기능성을 더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보고되며 이는 발달특성의 차이로 해석되는데(Cohen & Will, 1985; Farrel & Barnes, 1993), 아직 우리나라 청소년과 부모대상의 연구는 없다.

가족의 기능성과 청소년의 심리적 복지수준과의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가족체계의 기능성을 높게 지각한 경우 가정생활만족도(최규련, 1998)와 자아존중감이 높으며(전귀연, 1996; 전귀연, 최보가, 1995a, b, c; 최규련, 1998), 우울정도는 낮은 것으로 보고된다(박금희, 1986; 전귀연, 1996; 전귀연·최보가, 1995c; 최규련, 1998; Jensen, 1972). 이러한 경향은 청소년 자녀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김윤희, 1989; 김홍기 외, 1991; 최규련, 1995b; Cohen & Will, 1985; Farrel & Barnes, 1993).

2. 청소년의 가정생활만족도와 관련변인

청소년 자녀의 가정생활만족도는 가족원 간의 상호작용과 심리적 환경 및 그에 대한 만족등을 포함하

는 것으로서 가정환경 중에서 과정환경에 속한다. 이는 가정화목도와 불가분의 관계이며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김선애, 1997; 김윤희, 1989; 정유미·김득성, 1998).

최근 서울시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1998)에서 청소년의 가정생활만족도에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은 부모간 친밀도이고 그 다음 부모의 자녀존중적 의사소통, 형제친밀도, 가정경제수준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자의 선행연구(1998)에서는 부모와의 의사소통, 가족의 기능성이 관련변인으로 밝혀졌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가족체계의 기능성과, 부/모와 자녀간 의사소통, 부모의 화목정도 등이 청소년의 가정생활만족과 관련되는 변인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매우 부족하고 변인들의 영향력에 대한 분석도 부족한 상태이다.

3.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관련변인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자신을 존경하며 가치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하며(Rosenberg, 1979), 개개인의 환경에서 중요한 타인(significant others)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관련변인으로 부모와의 관계, 부모와의 의사소통, 신체적 요인, 친구관계, 학교생활만족, 학업성적 등이 보고된다.

즉 가족의 비효율적인 기능과 갈등은 청소년 자녀의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촉진시키며(Ketsetzis et al., 1998),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일수록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긍정적으로 나타났다(권혜진·윤종희, 1993). 그리고 자녀요인으로서 자신의 외모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때(최규련, 1998), 친구관계가 긍정적일 때(심희옥, 1998; 이주리, 1994; 이진화·전경숙, 1995; 최규련, 1998), 학교생활에 만족할 때(김희화·김경연, 1998; 심희옥, 1998; 최규련, 1998)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보고된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가족의 기능성과,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 그리고 자녀요인으로서 외모만족, 친구관계, 학교생활만족

등의 변인이 유의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추론되는데, 부모의 결혼만족이나 자아존중감 같은 부모요인과 관련성에 대해서, 그리고 각각의 상대적 영향력에 대해서 아직 실증적 보고는 없다.

4. 청소년의 우울증도와 관련변인

우울은 대부분의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정신건강문제로 특히 청소년기에 이르러 우울증의 빈도는 크게 증가한다. 일반 청소년과 그 부모의 우울증상을 연구한 Kendal과 Davis(1982)는 청소년 자녀들이 그 부모보다 더 많은 우울증상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청소년기에 인지가 발달함으로써 자의식과 자기비판, 그리고 부정 자기평가와 정서들을 그전보다 더 많이 경험하게 되며, 또한 다양한 정서경험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지각하는 능력이 성숙해지는 결과 우울한 느낌과 생각을 경험할 확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있다. 이외에 청소년기의 발달 과제인 가족으로부터의 독립과정과 정체감 확립이 진행됨에 따라 부딪치게 되는 환경적 스트레스의 증가와 가족과의 유대감 약화 등이 청소년기의 우울증 빈도를 높게 한다는 해석들이 있다(Merton, Lewinsohn & Hops, 1990).

관련변인에 대한 연구로는 가족생활만족이 대학생의 우울에 부정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있고(최선남·최외선, 1995), 부모-자녀관계에서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과 결속감이 적을수록 청소년 자녀의 우울증이 많아진다는 보고가 있다(최외선 외, 1997; Martin & Waite, 1994). 그리고 부모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많을수록 청소년 자녀들은 우울증, 적대감, 신체적 강박증적 대인예민성 등을 적게 경험하며(김오남·김경신, 1994; 차은정, 1992; Capaldi, 1991), 특히 아버지와의 폐쇄적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우울 유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백양희·최외선, 1997; 최규련, 1998).

또한 가정외적 요인으로서 학업이나 교사 및 학교생활에 대해 스트레스가 많거나 불만이 많을수록 우울증도가 높으며(백양희·최외선, 1997; 심희옥,

1998 최외선 외, 1997; Capaldi, 1991), 친구관계에 있어서는 또래집단에서 제외될 때 더욱 소외와 좌절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된다(신효식·이경주, 1997; 백양희·최외선, 1997; 최외선 외, 1997; Kovach, 1983).

자아존중감 이론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낮을 때 우울증도가 증가할 것으로 가정하는데(Rosenberg et al., 1989), 실제로 우리나라의 청소년과 그 부모 공통적으로 자아존중감과 우울증 사이에 부적 관계를 보이며(최규련, 1998), 자아존중감이 우울증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심희옥, 1998).

부모요인이 청소년의 우울증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매우 부족하며 외국에서 실시된 연구보고가 몇편 있다. 즉 부모의 결혼만족이나 관계화목 정도가 성인기 자녀의 생활만족도와 우울증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있는데 이는 가족스트레스 가설과 선택 가설로 설명되고 있다. 가족스트레스 가설은 부모의 갈등과 낮은 결혼만족이 자녀의 직접적인 스트레스원이 되어 자녀의 생활만족을 감소시킨다는 것이다(Amato & Booth, 1991). 선택가설은 만성적으로 불행하고 우울한 부모의 자녀는 부모의 만성적인 불화와 우울을 물려받아서 불행하고, 심리적 복지수준이 낮다는 것이다(Gohm et al., 1998; Lykken & Tellegen, 1996).

이상의 고찰을 통하여 가족체계의 기능성, 부/모와 자녀간 의사소통, 학교생활, 친구관계,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가정생활만족 등과, 부모요인으로서 부모의 결혼만족, 자아존중감, 우울증도 등이 청소년의 우울증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으로 추론된다. 그런데 관련변인들의 상대적 영향이나 인과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것이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선행연구가 미흡한 상황에서 탐색적인 성격의 접근을 하고자 한다. 먼저 부모와 청소년 자녀가 지각하는 가족체계의 기능성과 심리적 복지수준의 경향을 파악하고,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체계의 기능성, 자녀요인(외모만족, 학교생활만족, 친구관계만족), 부모-자녀관계(부/모와 자녀간 의사소통) 등을 부모요인(결혼만족, 자아존중감, 우울증도)과 더불어 분석하여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복지수준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자는 청소년의 심리적 복지 변인중의 하나인 우울정도를 정신건강 지표로서 중시하여 최종 종속변인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연구자의 임상 경험과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부모 요인, 부모-자녀 관계 등이 청소년의 가정생활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들은 또한 자녀 요인들과 더불어 자아존중감과 우울에도 차례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하여서 가정생활만족과 자아존중감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한 연구모형을 작성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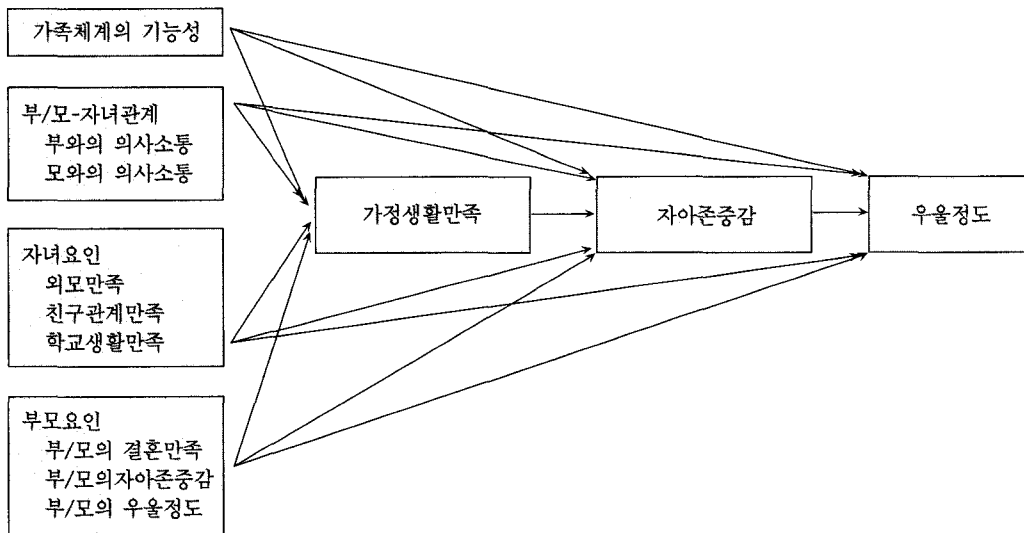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서울시와 근교에 소재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

학중인 학생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먼저 사회경제적 지위와 성, 연령이 균등하게 분포되도록 강북과 강남, 강서, 강동지역과 과천시에 소재한 4개 중학교, 5개 고등학교를 선정하고 해당학교의 2학년 2개 학급을 선정한다음 해당학교 교사의 도움을 받아 부모가 동거하는 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정하였다. 이 학생들을 통하여 '아버지용' 과 '어머니용' 질문지를 따로 봉투에 넣어 부모에게 배부하고 회수하였으며 학생본인은 '자녀용' 질문지에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다.

부모용 질문지에 지침서를 첨부하여 부모가 의논하거나 보여주지 말고 직접 기입하여 각각 봉투에 넣어 풀로 부착하여 학생편에 보내도록 하였다. 총 중학생 300명과 고등학생 360명에게 질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하였다. 예비조사를 위해 중학생과 고등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척도의 수정과 보완작업을 거친 후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질문지 회수 결과 부실기재된 것, 누락된 것을 제외시키고 부모와 자녀 3자가 동시에 제대로 기입한 질문지를 분석하여서 532 단위의 부모자녀가 최종분석 대상이 되었다¹⁾.



〈그림 1〉 청소년의 심리적 복지수준의 관련변인에 관한 가설적 연구모형

2. 조사도구

1) 가족 기능성

Olson(1982) 등이 개발한 척도인 FACES II (the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 II)는 그 이후에 개발한 FACES III보다 신뢰도와 타당도면에서 우세한 것으로 보고되고(최연실, 1996), 특히 Cluff 등(1994)은 FACES II 사용을 권장하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FACES II를 축약한 척도를 작성하여 신뢰도 검증을 거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응집성을 측정하는 문항 16개, 적응성을 측정하는 14개 문항으로 되어있었으나 신뢰도 분석결과 적응성 문항 중 1개 문항(‘우리집의 생활규칙은 좀처럼 바꾸기 어렵다’)의 신뢰도가 낮아 제외시켜서 응집성 문항 16개와 적응성문항 13개로 구성되었다.

Cronbach's α 계수에 의한 신뢰도 검증결과 응집성 척도는 부, 모, 자녀의 경우 각각 .87, .89, .87이고, 적응성 척도는 부, 모, 자녀의 경우 각각 .84, .83, .85이며, 5점 Likert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응집성과 적응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가족체계의 기능성은 부모, 자녀 각각이 응답한 응집성과 적응성 점수의 산술평균을 산출하여 부가 지각한 가족의 기능성, 모가 지각한 가족의 기능성, 자녀가 지각한 가족 기능성으로 명명하였다.

2) 심리적 복지수준

심리적 복지수준 변인으로 가정생활만족과 자아존중감, 우울정도를 측정하였다. 자녀의 가정생활만족도 척도는 본 연구자가 직접 작성한 6개 문항을 이용하였다. 이 문항은 ‘가족생활에 대한 만족’, ‘가정내 자신의 역할에 대한 만족’,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 ‘부모님에 대한 만족’, ‘가정의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 등으로 되어있으며 신뢰도 분석결과 Cronbach's α 값이 .89로 나타났다. 7점 Likert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Rosenberg(1979)의

Self-Esteem Inventory 10문항을 이용하였는데 1개 문항(‘나는 자존심이 좀더 있으면 좋겠다’)의 신뢰도가 낮아 제외시키고 9문항을 분석하였다.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α 계수에 의한 신뢰도 검증결과 .83이며 5점 Likert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우울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Ubrich(1988)의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에서 신체적 증상을 제외한 8개 문항을 선정하였다. Cronbach's α 계수에 의한 신뢰도는 .89이다. 5점 Likert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3) 부모 요인

부모의 결혼만족도 측정은 Schumm 등(1981)의 KMSS(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3문항으로 구성되고 7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생활에 만족함을 의미한다. Cronbach's α 계수에 의한 척도의 신뢰도는 부모가 공통적으로 .93이었다. 부모의 자아존중감 측정은 청소년 자녀와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였고 신뢰도는 부 .80, 모 .79 이었다. 부모의 우울정도 측정도 청소년 자녀와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였고 신뢰도는 부 .90, 모 .91이었다.

4) 자녀 요인

자녀의 학교생활만족, 친구관계만족, 자신의 외모에 대한 만족은 7점 Likert척도의 단일문항으로 각각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게 되어있다.

5) 부모자녀관계 요인

자녀의 부모와의 의사소통정도는 Barnes과 Olson(1985)이 개발한 PAC(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중 개방적 의사소통을 측정하는 10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로서 부 또는 모와의 의사소통정도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연구자의 선행연구(1995b, 1998)를 참조.

를 청소년이 지각한 것을 각각 측정하게 되어있다. Cronbach's α 계수에 의한 신뢰도 검증결과 부와의 의사소통 척도가 .88이고, 모와의 의사소통 척도가 .90이다. 5점 Likert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개방적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3. 분석방법

일반적 경향을 알기 위하여 백분율과 평균, 표준편차를 계산하고 차이검증을 위해 t-test, paired t-test를 사용하였으며, 관련정도와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관계(Correlation), 중회귀분석(Stepwise-multiple regression analysis)과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사용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PC-WIN을 이용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부모와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가족 기능성과 심리적 복지수준비교

부모와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기능성 수준을 비교한 결과 표 1에서와 같이 부와 모가 청소년 자녀보다 가족 기능성을 공통적으로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부모와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자아존중감을 비교한 결과 부모와 청소년 자녀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우울정도에서 청소년 자녀가 가장 높으며 다음 어머니, 아버지의 순서로 나타났고 그 차이는 유의하였다($p < .001$).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직접적인 선행연구가 없어 비교는 어려우나 부모보다 청소년의 우울정도가 높은 것은 외국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되는 것이다(Kendal & Davis, 1982; Merton et al, 1990).

부모의 결혼만족과 청소년 자녀의 가정생활만족은 척도가 다르므로 단순비교가 불가능하여 비교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로서 청소년 자녀는 부모에 비해 가족의 기능성을 낮게 지각하고 우울정도는 높으며 자아존중감은 부모와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후속연구를 요한다.

2. 가족체계의 기능성, 부모요인, 자녀요인, 부모자녀관계 및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복지수준의 상호관계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가족체계의 기능성, 부모요인(결혼만족, 자아존중감, 우울정도), 자녀요인(외모만족, 친구관계만족, 학교생활만족), 부모-자녀관계(부/모와 자녀간의 개방적 의사소통정도)와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복지수준(가정생활만족, 자아존중감, 우울정도) 등의 상호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다.

청소년 자녀의 가정생활만족과 자아존중감은 정적 상관관계(.42)를 보이고, 가정생활만족과 자아존중감은 우울정도와 공통적으로 부적 상관(-.42, -.59)

<표 1> 부모와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가족의 기능성 및 심리적 복지수준

구 분	가족 기능성	자 아 존 중 감	우 울 정 도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부	109.82 (16.06)	32.56 (5.67)	17.84 (6.21)
모	112.09 (16.81)	31.33 (5.63)	20.18 (6.54)
자녀	100.07 (18.25)	31.80 (6.74)	23.18 (7.19)
paired-t value	부자간 -10.56*** 모자간 -12.52***	부자간 -1.65 모자간 1.14	부자간 14.60*** 모자간 7.82***

〈표 2〉 가족체계의 기능성, 부모요인, 자녀요인, 부모자녀관계 및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복지수준의 상관관계

변 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가족 기능성(c)	1.00													
2. 부와의 의사소통(c)	.67***	1.00												
3. 모와의 의사소통(c)	.64***	.42***	1.00											
4. 외 모 만 족(c)	.21***	.17***	.20***	1.00										
5. 친구관계만족(c)	.27***	.20***	.21***	.34***	1.00									
6. 학교생활만족(c)	.34***	.32***	.30***	.34***	.56***	1.00								
7. 가정생활만족(c)	.72***	.66***	.55***	.29***	.32***	.44***	1.00							
8. 자 아 존 중 감(c)	.44***	.30***	.34***	.48***	.35***	.39***	.42***	1.00						
9. 우 울 정 도(c)	-.42***	-.34***	-.25***	-.38***	-.37***	-.37***	-.42***	-.59***	1.00					
10. 결 혼 만 족(h)	.26***	.23***	.15***	.03	.04	.08	.30**	.13**	-.13**	1.00				
11. 자 아 존 중 감(h)	.24***	.23***	.18***	.10*	.11*	.10*	.28***	.17***	-.13**	.42***	1.00			
12. 우 울 정 도(h)	-.21***	-.22***	-.08	-.10*	-.14**	-.08	-.22***	-.12*	.21***	-.50***	-.57***	1.00		
13. 결 혼 만 족(w)	.27***	.22***	.13**	.07	.05	.12*	.28***	.08	-.11*	.50***	.33***	-.46***	1.00	
14. 자 아 존 중 감(w)	.19***	.10*	.15**	.08	.06	.11*	.23***	-.09*	-.08	.23***	.28***	-.11*	.31***	1.00
15. 우 울 정 도(w)	-.14**	-.07	-.13**	-.10*	-.07	-.11*	-.16**	-.09*	.18***	-.30***	-.25***	.28***	-.46***	-.45***

p<.05* p<.01** p<.001*** (c) : 자녀 (h) : 아버지 (w) : 어머니

을 보였다.

청소년 자녀의 가정생활만족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는 변인은 가족의 기능성(.72), 부와의 의사소통(.62), 모와의 의사소통(.55), 학교생활만족(.44), 부의 결혼만족(.30)등과 친구관계만족, 모의 결혼만족 등이었다.

청소년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는 변인은 외모만족(.48), 가족의 기능성(.44), 학교생활만족(.39), 친구관계만족(.35), 모와의 의사소통(.34), 부와의 의사소통(.30) 등이었다.

청소년 자녀의 우울정도와 유의한 상관을 보이는 변인은 가족의 기능성(-.42), 가정생활만족(-.42), 외모만족(-.38), 친구관계만족(-.37), 학교생활만족(-.37), 부와의 의사소통(-.34), 모와의 의사소통(-.25), 부의 우울정도(.21) 등이었다.

3.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복지수준에 대한 관련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

청소년 자녀의 가정생활만족, 자아존중감, 우울정

도와 관련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각각 파악하기 위하여 가족기능성, 부모요인, 자녀요인, 부모자녀관계를 독립변인에 포함하여 중회귀분석을 하였다.

가설적 연구모형에 따라 회귀분석시 각각의 변인을 독립변인에 포함하였고 이 결과들을 토대로 인과분석을 한 결과는 표 3과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다.

먼저 청소년 자녀의 가정생활만족과 자아존중감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각각 분석한 결과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가족의 기능성($\beta=.326$), 부나 모와 자녀간 의사소통정도($\beta=.331$, $\beta=.217$), 부가 지각한 결혼만족($\beta=.150$) 등이 청소년자녀의 가정생활만족에 직접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 설명력은 63.1%이었다. 한편 청소년 자신의 외모만족($\beta=.358$), 가족의 기능성($\beta=.302$), 학교생활만족($\beta=.105$), 친구관계만족($\beta=.100$) 등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직접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이 변인들의 설명력은 38.4%였다.

청소년의 우울정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한 결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beta=-.463$), 가정생

<표 3> 청소년 자녀의 우울정도에 대한 각 변인의 인과효과

독립변인	청소년자녀의 우울정도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인과효과
가족 기능성	-	-.020	-.020
부와의 의사소통	-	-.250	-.250
모와의 의사소통	-	-.034	-.034
외모만족	-	-.166	-.166
친구관계만족	-.153	-.046	-.199
학교생활만족	-	-.049	-.049
가정생활만족	-.155	-	-.155
자아존중감	-.463	-	-.463
부의 결혼만족	-	-.044	-.044
부의 우울정도	.110	-	.110

활만족($\beta=-.155$), 친구관계만족($\beta=-.153$)과 부의 우울정도($\beta=.110$) 등이 있고 이 변인들에 의한 설명력은 42.2%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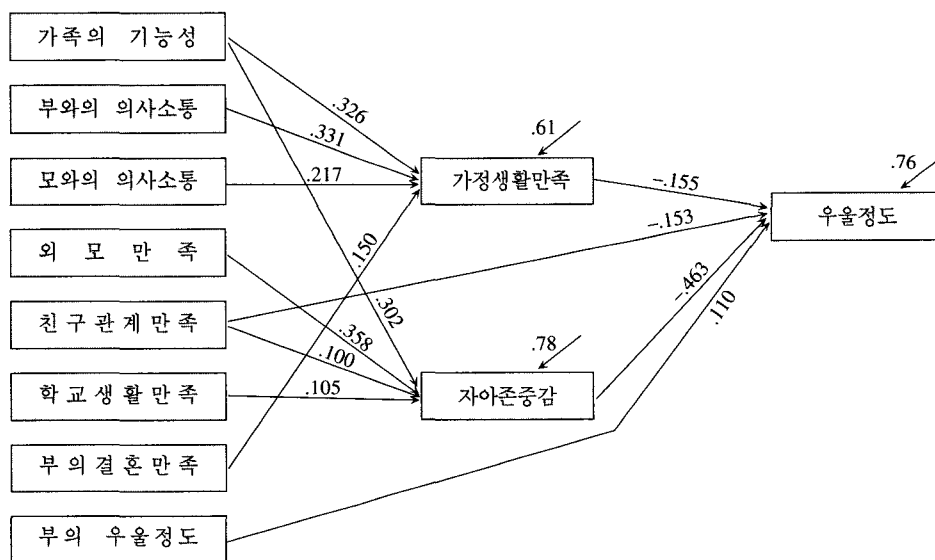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통하여 청소년이 가족의 기능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잘 될수록, 아버지가 결혼생활에 만족할수록 가정생활에 만족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이 자신의

외모와, 학교생활, 친구관계 등에 만족할수록, 가족의 기능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높은 자아존중감을 지닐수록, 가정생활과 친구관계에 만족할수록, 아버지의 우울정도가 낮을수록 청소년 자녀의 우울정도가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의 우울정도에 대한 관련변인의 인과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우울정도에 직접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다음 가정생활만족, 친구관계만족, 부의 우울정도 등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한편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의 기능성은 가정생활만족과 자아존중감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우울정도에 영향을 미쳤다.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부의 결혼만족은 가정생활만족을 통하여 청소년의 우울정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자녀요인중 외모만족, 친구관계만족, 학교생활만족은 자아존중감을 통하여 우울정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에서 청소년의 우울감에 대한 관련변인의 직



<그림 2>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복지수준에 관한 경로모형

접효과와 간접효과를 합한 총 인과효과를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이 가장 인과효과가 큰 변인이고, 다음 부와의 의사소통, 친구관계 만족, 외모만족, 가정생활만족, 부의 우울정도의 순으로 인과효과가 큰 변인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만족, 부의 결혼만족, 모와의 의사소통, 가족의 기능성 등도 간접적이지만 청소년 자녀의 우울감에 유의한 인과효과를 지닌 변인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는 가족체계의 기능성 향상과 부모-자녀간의 개방적 의사소통, 아버지의 결혼만족 증진을 통하여 청소년이 만족스런 가정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동시에 청소년이 자신의 외모와 친구관계, 학교생활 등에 대한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또 아버지의 정신건강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를 경로모형으로 제시하면 그림 2와 같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서울시와 근교의 중·고등학교에 재학한 청소년과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복지수준(가정생활만족, 자아존중감, 우울정도)에 대한 관련변인(가족체계의 기능성, 부모요인, 자녀요인, 부모자녀관계)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고, 청소년의 우울정도와 관련변인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고자 실시되었다.

이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청소년이 부모에 비해 가족체계의 기능성을 더 낮게 지각하며 우울정도는 더 높았다($p < .001$). 자아존중감은 부모 자녀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둘째, 청소년 자녀의 가정생활만족은 가족의 기능성과 부/모와의 의사소통, 아버지의 결혼만족도에 의해 유의한 영향을 받으며 이 변인들에 의해 전체 변량의 63.1%가 설명된다. 즉 청소년 자녀가 가족의

기능성을 높게 지각하고 부나 모와 의사소통을 잘 하며, 아버지의 결혼만족도가 높을 때 가정생활만족도가 높다.

셋째, 청소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은 가족의 기능성과, 외모만족, 친구관계만족, 학교생활만족 등의 자녀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이 변인들에 의해 전체 변량의 38.4%가 설명된다. 즉 가족의 기능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외모와 친구관계, 학교생활 등에 만족할수록 청소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은 높다

넷째, 청소년 자녀의 우울정도는 자아존중감, 가정생활만족, 친구관계만족, 아버지의 우울정도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변인들에 의해 전체 변량의 42.2%가 설명된다. 즉 자아존중감과 가정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친구관계만족도가 높을수록, 아버지의 우울정도가 낮을수록 청소년은 우울정도가 적게 나타났다.

다섯째, 청소년의 우울정도에 대한 관련변인의 인과효과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의 기능성은 청소년의 가정생활만족과 자아존중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이 변인들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우울정도에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은 청소년의 가정생활만족을 통하여 우울정도에 영향을 미쳤다. 자녀요인인 외모만족, 친구관계만족, 학교생활만족은 자아존중감을 통하여 우울정도에 영향을 미치고, 동시에 친구관계만족은 우울정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부의 결혼만족은 가정생활만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그리고 부의 우울정도는 직접적으로 청소년의 우울정도에 영향을 미쳤다.

결론적으로 청소년이 정신건강을 유지하려면 청소년 자신의 만족스런 가정생활과 긍정적인 자아존중감과, 친구관계 만족, 그리고 아버지의 정신건강이 중요하고, 이를 위하여는 청소년이 속한 가족체계의 기능성이 높고 아버지가 결혼생활에 만족하며, 부모-자녀간에 의사소통이 개방적이 되고, 청소년 자신이 자신의 외모와 학교생활, 친구관계 등에 만족해야 함을 밝혔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탐색적인 수준의 연구결과지만 이를 적용한다면 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방법으로 가족체계

의 기능수준 향상과 부모-자녀간 개방적 의사소통을 통하여 가정생활만족도를 높이는 것과, 학교생활과 친구관계, 외모 등에 만족하여 자아존중감이 향상되도록 하며, 아버지가 결혼생활 만족이 증진되고 우울 정서문제가 적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결과들이 청소년 자녀의 정신건강과 적응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내용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제언하는 바이다.

이로써 청소년의 심리적 복지수준의 관련변인으로서 가족체계의 기능성, 부모요인, 자녀요인, 부모자녀관계 등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구명하고 청소년의 우울정도와 관련되는 변인들의 인과효과를 밝히고자 했던 본 연구의 목적은 달성하였다고 본다. 다만 연구자의 여건 미비로 더 정교한 통계기법으로 부모와 자녀 3자간의 역동성을 분석하는 작업을 하지 못하였다. 이는 다음 연구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 참고문헌

- 1) 권혜진·윤종희(1993). 모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과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학회지, 14(1), 167-177.
- 2) 김선애(1994). 아동 및 청소년의 반사회적 행동 연구: 가족요인을 중심으로. 상명여대 박사학위논문.
- 3) 김수연(1997). 가족사정 척도개발과 타당도 검증.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 4) 김오남·김경신(1994).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의 의사소통 유형지각과 가족스트레스. 대한가정학회지, 32(3), 105-119.
- 5) 김윤희(1989). 부부관계, 부모-자녀 의사소통, 가족기능과 청소년 자녀의 비행과의 관계연구.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 6) 김흥기·장선향·이선미·정의식(1991). 우울증 환자가족에서 가족기능도 점수와 가족 적응력·결속력 평가척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2(7), 36-45.
- 7) 김희화·김경연(1998). 개인적 요인 및 환경적 요인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6(2), 47-60.
- 8) 민하영(1992). 청소년의 비행정도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가족의 응집 및 적응의 관계. 아동학회지, 12(1), 112-124.
- 9) 박금희(1986).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모 화합도와 가족의 응집성 및 적응성과 청소년의 불안수준과의 관계.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10) 백양희·최외선(1997). 환경변인 및 내적 통제력,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5(2), 33-48.
- 11) 서울시(1998). '98 서울시 청소년의식조사. 서울특별시 청소년종합상담실.
- 12) 심희옥(1998). 아동 후기 초등학교 학생의 우울성향: 일상적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기술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6(6), 133-144.
- 13) 십대들의 쪽지(1994). 십대들의 쪽지모음 1, 2, 3, 4.
- 14) 이주리(1994). 아동내 역량지각과 관련변인들간의 인과모형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2(4), 193-208.
- 15) 이진화·전경숙(1995). 연령, 성별, 사회측정지위에 따른 아동의 자기능력 지각과 부모의 책임지각. 대한가정학회지, 33(6), 125-245.
- 16) 전귀연(1996). 청소년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체계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3), 137-155.
- 17) 전귀연·최보가(1993).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및 가족체계유형이 부모-청소년기자녀 관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1(3), 157-173.
- 18) 전귀연·최보가(1995a). 가족응집성이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3(1), 83-98.
- 19) 전귀연·최보가(1995b). 가족적응성이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3(2), 73-88.
- 20) 전귀연·최보가(1995c). 가족체계유형이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3(4), 99-113.
- 21) 정유미·김득성(1998). 청소년의 환경적 변인 및

-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6(3), 31-46.
- 22) 차은정(1992).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가족체계 및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울산시 중학생을 중심으로-. 울산대 석사학위논문.
- 23) 청소년개발원(1998). 청소년 의식조사보고서.
- 24) 최규련(1993a) 가족생활만족. *한국가족학연구회* 편. *가족학*. 하우출판사.
- 25) _____(1995b). 가족체계의 기능성, 부부간 갈등 및 대처방안과 부부의 심리적 적응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3(6), 99-113.
- 26) _____(1996). 가족학적 관점에 본 한국에서의 청소년문제와 그 대책. *대한가정학회지*, 34(1), 147-160.
- 27) _____(1998). 가족체계유형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복지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3(1), 120-142.
- 28) 최선남 · 최외선(1995). 가족환경변인 및 아동기 부모-자녀 결합형태가 청소년의 우울성향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3(3), 31-42.
- 29) 최연실(1996). 가족적응력, 응집성 평가척도(FACES)에 관한 연구고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1), 131-146.
- 30) 최외선 · 백양희 · 이미옥(1997). 부모-자녀 유대관계와 우울성향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27-40.
- 31) Amato, P. R., & Booth, A.(1991). Consequences of parental divorce and marital unhappiness for adult well-being. *Social Forces*, 53, 895-914.
- 32) Capaldi, D. M.(1991). Co-occurrence of conduct problems and depressive symptoms in early adolescent boys. Part 1: Familial factors and general adjustment at Grade 6. *Development and Psychology* 3, 277-300.
- 33) Cohen, S. & Will, T. A.(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 310-357.
- 34) Cluff, R. B., Hicks, M. W., & Madsen, Jr., C. H.(1994). Beyond the circumplex model: 1. A moratorium on curvilinearity. *Family Process*, 33, 455-470.
- 35) Farrel, M. P. & Barnes, G. M.(1993). Family systems and social support: A test of the effects of cohesion and adaptability on the functioning of parents and adolesc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1), 119-132.
- 36) Gohm, C. L., Oishi, S., Darlington, J., & Diener, E. (1998). Culture, parental conflict, parental marital status and the subjective well-being of young adul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may), 319-334.
- 37) Jensen, G. F.(1972). Parent, peer, and delinquent ac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8, 562-575.
- 38) Kendal, D. B. & Davis, M.(1982). Epidemiology of depressive mood on adolescents: An empirical study.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39, 1205-1212.
- 39) Ketsetzis, M., Ryan, B. A., & Adams, G. R. (1998). Family process, parent-child interactions, and child characteristics influencing school-based social adjust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may), 374-87.
- 40) Kovach, B. F.(1983). *The experience of adolescence*. Scott, Foreman & Company.
- 41) Lavee, Y. & Olson, D. H.(1991). Family types and response to stres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3), 786-798.
- 42) Lykken, D., & Tellegen, A.(1996). Happiness is a stochastic phenomenon. *Psychological Science*, 7, 186-189.
- 43) Martin, G. & Waite, S.(1994). Parental bonding and vulnerability to adolescent suicide. *Acta Psychiatry Scand* 89, 246-254.
- 44) Merton, B. A., Lewinsohn, D. M. & Hops, H. (1990). Sex differences in adolescent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9, 55-63.
- 45) Olson, D. H. & Portner, J.(1982).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s

- (FACES) II. in E. E. Filsinger(ed). *Marriage and family assessment*, Sage Publication.
- 46) Rosenberg, M.(1979).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Conceiving the self*. N. Y.: Basic Books, Inc.
- 47) Rosenberg, M., Schooler, C., & Schoenbach, C., (1989). Self-esteem and *sociological* adolescent problems: modeling reciprocal effects. *American Review* 54, 1004-1018.
- 48) Siegel, J. M., & Brown, J. D.(1988). A prospective study of stressful circumstances, illness, symptoms, and depressed mood among adolesc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24, 715-721.